신뢰와 혁신 국민과 함께 KBS
2025 KBS 방송지표

KBS 사보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Vol. 779



이영애가 돌아왔다!

KBS 2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

배우 이영애가 KBS 드라마로 돌아온다. 1999년 〈초대〉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이영애는 9월 20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되는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에서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강은수 역을 맡아 오랜만에 안방 시청자와 만난다. 이 드라마는 우연히 손에 넣은 마약 가방을 놓고 펼쳐지는 학부모와 미술 강사의 위험천만한 동업 일지를 흥미진진하게 그린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훈남 배우 김영광이 낮에는 인기 미술 강사, 밤에는 유명 클럽 MD로 활동하는 베일에 싸인 인물 이경 역을 맡아 이영애와 호흡을 맞춘다.

"삶의 무게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작품"

〈은수 좋은 날〉은 로맨스와 스릴러, 액션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한 송현욱 감독, 밀도 높은 서사와 리얼리티를 겸비한 전영신 작가가 의기투합한 웰메이드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베테랑 형사 장태구 역을 맡은 박용우를 비롯해 배수빈, 조연희, 황재열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합류하며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얼굴의 선생'으로 변신한 김영광은 "누구나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다. 〈은수 좋은 날〉은 그런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비밀이 압도적 몰입감 선사"

김영광과 박용우가 의문의 가방을 사이에 두고 벌일 숨 막히는 추격전도 관심거리. 두 사람은 마약 밀매 조직 '팬텀'이 잃어버린 가방 하나로 엮이며 쫓고 쫓기는 팽팽한 관계성을 그려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김영광과 박용우가 만들어내는 대립 구도는 단순한 추격전을 넘어선다. 스릴러적 긴박감은 물론, 서서히 드러나는 두 사람의 비밀이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가방 하나에 얽힌 두 남자의 운명적 대결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KBS가 야심 차게 준비한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은 9월 20일(토) 밤 9시 20분 KBS 2TV에서 최초 공개된다.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

“AI 방송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이뤄야”

올해로 62회를 맞은 방송의 날 기념식이 9월 1일(월)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렸다. 방송의 날은 1947년 9월 3일, 대한민국이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독자적인 호출부호 HL을 부여받아 방송 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기념사에서 “KBS는 그동안 방송 역사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의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성장했다. 이 모든 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한 방송혁신은 KBS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응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모두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날을 맞아 KBS는 30여 년 동안 KBS 지역총국 송·중계소 등 시설 경비 수탁업무를 맡아 공사 시설물 안전에 이바지한 케이디에프에스(주), 상설 전시 수주와 시공 과정에서 KBS 아트 비전의 위상을 높이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이바지한 성정아 총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송의 날 정기 표창은 라디오국 황초아 등 50명, 업무 유공 표창 개인상은 정책기획국 오창훈, 생방기술국 김영광 등 13명, 단체상은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진 등 10개 팀이 받았다. 이어 KBS 우수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선 ▲TV 부문 〈불후의 명곡〉 APEC 정상회의 특집을 제작한 예능센터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 서유진, ▲라디오 부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제작한



라디오국 윤일영, 박선영, 김우용, 주하영, ▲보도 부문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보고서〉 2부작을 만든 시사제작국 오정현, 보도영상국 김민준, 안영아, 김대영 사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KBS-한국언론학회 공동 세미나

“다양성과 성별 대표성이 공영의 가치”

국내 언론사 최초로 설립된 성평등 전담 상설 기구 ‘KBS 성평등센터’가 개소 7주년을 맞아 9월 4일(목)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넷플릭스, 디즈니, BBC 등 글로벌 미디어 업계와 네이버, CJ ENM 등 국내 미디어 업계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다양성 목표로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포용성’을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는 넷플릭스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이 51%, 디렉터 이상 직급의 여성 비율이 51.7%에 이른다. 디즈니의 여성 직원 비율은 2024년 기준 51.2%, BBC는 2023년 기준 50.1%다. 김 교수는 “미디어 제작자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인식이 콘텐츠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인적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영방송이 스스로 ‘누가 말하고, 누가 보이며,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양성과 성별 대표성의 실현 없이는 공영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수민 KBS 성평등센터장은 설립 7년을 맞은 성평등센터 설치 배경과 과정, 구성과 기능, 그동안의 사업 성과 등을 소개했다. KBS는 2019년부터 여성 직위자 임용 목표를 수립해 성별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부장급 이상 직급자가 2022년 8%, 2023년 9%, 2024년 10%, 2025년 12%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KBS가 2024년 경영 목표로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를 설정하고 〈아침마당〉 등 4개 프로그램 출연진을 다양화한 결과,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 출연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임 센터장은 “시청자 조사에서 공영방송의 다양성, 포용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성평등을 조직의 핵심 가치로 삼아 공영방송의 경쟁력으로 전략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에선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나왔다. 류란 SBS 8뉴스부 기자는 “성평등 보도의 개념을 구체적 실천 지침으로 발전시키려면 기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언론사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토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는 “KBS 성평등센터의 활동을 외부에 더 많이 알려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KBS-포커스미디어, 공익캠페인으로 상생 협력

KBS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가 8월 19일(화)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생활 밀착 안전 공익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커스미디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4천 6백여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TV 6만 3천여 대를 운영하는 업계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S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공익캠페인 홍보에 참여하고, 포커스미디어가 보유한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캠페인과 프로그램 홍보를 함께하게 된다. KBS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더불어 공익캠페인을 통한 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우성 KBS 부사장은 “KBS와 포커스미디어가 서로 윈-윈하고 유익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고, 윤제현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대표는 “이 기회를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씨름 중계방송의 원조 KBS

‘백두·한라·금강·태백’을 KBS가 정했다고?

1984년 3월 4일 제3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 9시가 다 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중계 아나운서가 입을 열었다. “9시 뉴스는 이 중계방송이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립니다.” 씨름이 〈9시 뉴스〉를 밀어낸 건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이날 9시 뉴스는 40분이나 뒤로 밀렸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시간대에 씨름 경기를 중계한 것도 방송 사상 처음이었다.

천하장사 이만기 등장…최고 시청률 68%

1983년 4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막한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시작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경기장은 연일 미어터졌고,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은 이들은 잠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최고 시청률 61%. 당시 경남대 2학년이던 무명 씨름 선수가 신들린 기술을 선보이며 돌풍을 일으켰다. 제1대 천하장사에 등극한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이만기. 씨름판의 꽃미남 몸짱 스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만기는 1984년 국내 스포츠 선수 전체 소득 1위를 차지한다. 1985년 3월 18일 제6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을 장식한 이만기와 이준희의 대결은 68%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찍었다. 이만기는 천하장사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하며 한국 씨름의 전설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 공모로 정한 체급

백두, 한라, 금강, 태백이라는 씨름 체급 이름에 얽힌 일화도 흥미롭다. KBS 씨름 중계방송의 산파역인 스포츠 PD 김재길 씨의 책 《KBS야, 너 참 많이 컸구나!》를 보면, 처음엔 씨름과 황소가 가깝다는 점에 착안해 황소급, 중소급, 송아지급, 송치급으로 하려 했다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반발이 쏟아지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 겸 공모를 해보자! 그렇게 당선된 이름이 백두, 한라, 금강, 태백이었다. 민속씨름 경기를 중계하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것도 KBS였고, 씨름이 국민 스포츠로 정착하는 데 중심추 역할을 한 것도 KBS였다. 민속씨름의 중흥은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다.

2025 추석장사씨름대회 울주에서 개최

시대가 바뀌면서 씨름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연맹과 협회의 갈등, IMF 경제위기 등이 겹쳐 한때 중계방송까지 중단됐다. 씨름은 이제 예전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단순히 스포츠 종목으로만 봐선 안 된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 내려온 씨름은 2018년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예나 지금이나 씨름에 진심인 KBS는 중계방송을 재개했고, 예능 〈씨름의 희열〉을 선보이기도 했다. 2025 추석장사씨름대회가 10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울산시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KBS는 10월 3일(금) 오후 3시 여자부 경기를 시작으로 5일(일)부터 8일(수)까지 태백, 금강, 한라, 백두장사 경기를 매일 오후 2시 1TV로 생중계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겨루는 한국어 한판

우리말 겨루기

“참가자 71번 마주환!” 8월 23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1TV 〈우리말 겨루기〉 출연자 선발 현장. 필기시험 합격자로 호명된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한국·앙골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주환 씨는 군에서 전역한 지 한 달 된 대학생, “한국어 실력을 알고 싶어 지원했는데 이제 목표는 우승”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말 정복에 나섰다. 한 고등학생은 할아버지와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서 한국어를 익혔다며 환하게 웃었고, 올 5월 개교한 충남 아산충무고등학교에선 무려 17명의 학생이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어 교사 김유진 씨는 “교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4세가 많은데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필기시험을 통과한 30여 명 가운데 본선 티켓을 거머쥔 도전자는 단 12명! 이들은 우승을 놓고 매월 4명씩 한국어 실력을 겨룬다. 방송은 9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주 월요일(9/29, 10/27, 11/24)에 편성됐다. 본선 우승자들과 최고 득점을 기록한 준우승자는 12월 22일 ‘다문화 청소년 특집 왕중왕전’ 무대에 선다.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말 겨루기〉는 국내 유일의 한글 퀴즈쇼로 미래 세대와 함께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도전하는 여름방학 ‘사제 동행 특집’을 방영했고, 올해는 명인다문화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 청소년 특집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의 우승자에게는 장학금 500만 원, 왕중왕전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제35회 KBS국악대경연 대상
대금 연주자 차루빈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 젊은 국악인을 발굴하는 KBS국악대경연에서 국악계의 새 별이 탄생했다. 8월 29일(금)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35회 KBS국악대경연 결선연주회에서 기악 부문 차루빈(24·남)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금 독주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연주한 차루빈은 성음을 다채롭게 사용하며 안정적이고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한 차루빈은 2022년 제42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38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대금 금상을 받는 등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제35회 KBS국악대경연 결선연주회〉는 한가위 연휴인 10월 7일(화) 낮 12시 10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금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새 MC 권정열

음색 하나로 걸음을 멈추게 했던 홍대 버스킹의 전설, 〈더 시즌즈〉의 최다 출연자(6회)로 이름을 올린 ‘10CM’의 권정열이 〈더 시즌즈〉의 여덟 번째 진행자로 나섰다. 첫 방송일인 9월 5일(금)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새 MC 권정열, 〈더 시즌즈〉의 밴드마스터 정동환, 최승희·손자연·최지나 PD가 참석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



Q 박보검 씨의 후임인데 부담은 없나?

권정열: 보검 씨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점에서 취약하다(웃음). 다만 KBS 심야 음악 프로에 다수 출연한 경험이 있고 현직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최승희(PD): 〈더 시즌즈〉가 대한민국 대표 음악 토크쇼인 만큼 대중의 인지도가 높고 음악성을 인정받은 분을 진행자로 모시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점에서 1순위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제안을 받아줬다.

Q 첫 방송 소감은?

권정열: 막상 진행자로 와보니 너무 긴장되더라. 심지어 첫 녹화 날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행히 관객과 출연자들의 응원 속에 녹화를 무사히 끝냈다.

정동환: 무대 뒤에서 살짝 떠는 모습을 봤지만 관객 앞에 섰을 땐 제가 알던 권정열 선배 모습 그대로 화려하고 멋졌다. 출연자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서도 연륜이 느껴졌다.

최승희: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졌음에도 첫 녹화 때 문밖을 나선 관객의 표정이 참 밝았다. 이번 시즌부터 밤 11시 20분에서 10시로 방송 시간을 앞당긴 만큼 차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이번 부제가 ‘쓰담쓰담’인 이유는?

손자연(PD): 지난달 〈더 시즌즈〉 공식 SNS에 공모를 부쳤는데 2,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쓰담쓰담’은 가장 많은 분이 추천하셨다. 금요일 밤, 시청자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을 건네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Q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는?

권정열: 가수 장범준 씨를 모시고 싶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존경하는 뮤지션이기도 하다. 저와 장범준 씨가 방송에 함께 나온 적이 없어서 재밌고 신선한 무대가 될 것 같다.

정동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와 임윤찬 씨 등 클래식계에서 맹활약하는 아티스트를 초대하고 싶다. 이분들이 출연한다면 무대에서 권정열 선배와 어떤 조합을 이룰지 궁금하다.

최지나(PD): 권정열 씨가 음악으로 홍대 거리를 주름잡은 전설이지 않았나. 그때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음악의 길에 접어든 신진 아티스트들과 제대로 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Q 시청자께 한 마디?

손자연: KBS는 심야 음악 프로의 명맥을 30년 넘게 잇고 있다. 2023년부터 〈더 시즌즈〉로 새 간판을 달면서 진행자와 프로그램의 색깔도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최지나: 〈더 시즌즈〉가 가을에 다시 문을 연다. 노래를 듣기 좋은 계절인 만큼 다양한 음악을 즐기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권정열: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꼭 함께해 달라. 시청자, 관객, 모든 출연자까지 정성을 다해 마음을 ‘쓰담쓰담’해 드리겠다.

웃음으로 도쿄 흔든 〈개그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가 일본을 웃음으로 강타했다. 9월 3일(수) 일본 도쿄의 오타 시민회관 1,400석이 관객으로 가득 메워졌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쿄에서 열린 〈개그콘서트 in Japan〉은 첫 공연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인 관객 비중이 크게 늘었다. 원활한 공연을 위해 실시간 번역 자막을 화면에 띄우고 관객과 현장 소통을 위한 통역사도 배치했다. 정범균(22기), 정태호(23기), 신윤승(27기), 나현영(33기) 등 KBS 공채 코미디언들이 슬랩스틱과 만담, 시트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소개팅 해프닝을 다룬 ‘데프콘 썸 어때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한 ‘황해 2025’, 파출소 내 기상천외한 민원을 다룬 ‘심곡파출소’, 방청객의 고민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소통왕 말자 할매’ 등 간판 코너가 이어지자 객석에선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또 ‘클로즈 유어 아이즈’, ‘유니스’ 등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볼거리를 더했다.



이재현 PD는 “웃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 공통어인 웃음으로 해외 무대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앞으로 해외 교포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을 찾아 K-코미디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공연은 9월 21일(일)과 28(일) 밤 10시 45분 KBS 2TV에서 방영된다.

새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찬란한 거짓 인생의 막이 오른다!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난 모녀가 재벌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등을 돌리고 벌이는 거짓말 전쟁을 그려낸다. 욕망을 위해 딸을 버린 엄마와 복수를 위해 거짓 삶을 선택한 딸이 얽히며 생기는 인간관계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주요 관전 포인트. 주인공 차정원 역을 맡은 배우 이시아를 비롯해 이일화, 이승연, 최종환, 박철호, 설정환, 한기웅, 이효나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포진해 세밀한 심리 묘사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전형적인 일일드라마를 넘어,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할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 9월 22일(월) 저녁 7시 50분 KBS 2 첫 방송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장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 kbssabo@kbs.co.kr
편집인 이재원 **취재** 이효연 김도영 김석 김만화 **사진**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